







# 고 백

작사 김정덕  
작곡 황진영

사색적으로 (♩=70)



1. 그 누가 그 누가 불려서 그 품에 안겨  
심장이 심장이 불려서 꿈에 도안기네  
인품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2. 그 누가 그 누가 떠밀어 이 길에 가는가  
심장이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열정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3.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이의 곁에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할 심장의 고백  
그 평도에 마음이 끌려 따르는 김정은동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변함없을 이 마음

# 세월이야 가보라지

작사 김형찬  
작곡 안정호

흥취나게 (♩=110)



1. 봄 시 절 은 멀 리 흘 러  
우 리 인 생 가 을 인 데  
검 은 머 리 희 었 어 도  
그 시절 이 푸 르 르 오  
로 동 당 의 은 덕 으 로  
황 혼 기 도 청 춘 이 니  
세 월 - 이 야 - 가 - 보 라 지 -  
우 리 마 음 늙 을 소 나
2. 첫사랑을 속삭이던 버들방천 어드메나  
주름깊은 얼굴에도 그 버들이 싱싱하오  
선군세상 북을 누려 구슬환갑 노래하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3.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넉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신작음악회가 만사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얼마전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며 새로 창작한 노래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폭풍같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때에 또다시 편이여 울려 퍼진 새 노래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끝없는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음악예술부문에서는 시대정신이 백박지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곡을 많이 창작하며 기백있고 역동하는 음악예술활동으로 당의 음악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음악회무대에는 《철령아래 사파바다》, 《바다 만풍가》, 《근위부대자랑가》, 《승리는 내를 이어》를 비롯하여 최근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창작형상한 여러편의 새 작품들이 많이 울렸다.

모든 작품들이 그러하였지만 특히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 《고백》, 《세월이야 가보라지》와 같은 작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 변명하는 내 조국의 현실을 생동하게 형상한 새 노래들이었으므로 하여 신작음악회의 의미를 더욱 두

## 흥하는 시대가 낳은 멋쟁이 노래들

감정과 정서에 신중히도 맞는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해내는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혁명적이건 투적인 창조기풍에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음악회를 본 관람자들은 역시 새 노래가 나와야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의 선율, 우리의 장단이 마음에 꼭 들어맞는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흥하면 노래소리가 높기 마련이다. 인민이 기다리는 새 노래, 인민의 감정에 맞는 새 명곡들이 더 많이 울려 퍼지는 속에 우리의 생활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며 내 조국은 날마다 흥해가는 것이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로씨야련방 평의회 1부의장 일행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1부의장은 방문록에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는 로조 친선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다고 썼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4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4일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우리 나라의 민음적

## 방글라데슈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단기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장준상 보건성 부

방글라데슈에 가는 우리 나라 보건대표단 출발

단기 4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장준상 보건성 부

##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홍룡산 흥련 오가마현상공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

## 시대의 명작들로 선군예술의 황홀경을 펼친 공연

###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 대절찬속에 진행

사상전의 장엄한 포성이 친만 심장을 격동시키며 혁명의 진군 속도를 비상히 높여주는 속에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모란봉악단이 우리 식의 새로운 명곡, 명작들로 또다시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우리 당의 제일나팔수, 문학 예술혁명의 기관차라 되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사상으로 일관되고 당정책을 위시인으로 기백넘치는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선군 음악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만하게 하였다.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가 3일과 4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군대와 사회의 예술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출판부도, 예술 교육부문의 기자, 편집원들,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장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의 김동무로 더욱 친근해진 모란봉악단의 진할 줄 모르는 생기와 약동, 열정넘친 모습을 보여 준 관람자들의 회열과 광만이 없지 않게 열매였다.

인민의 명도자 를 우러러따르는 전인민적 사상감정의 불출연양 녀성3중창 《인민은 부르네 친근한 그 이름》으로 시작된 음악회무대에는 녀성3중창 《그리움의 하얀 폭배》, 녀성독창과 방창 《내 심장의 목소리》, 《고백》, 경음악편곡 《빛나는 조국》, 《인민공화국선포의 노



백승의 오직 한길 조선의 길이어라



